하루를 시작하며



부희 식 제주교육사랑회장

경자년 새해는 이념같등으로 얼룩진 불협화음을 풀어내고 상호 이해하면 서 화기애애(和氣靄靄)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빌어본다. 정성과 소 망을 기도하는 자세로 뛰어야 하겠 다. 지성이면 감천(感天)이라 했던 가. 노작의 땀, 오뇌의 피, 환희의 눈 물 이렇게 삼액체를 완전하게 가동 하면서 후회없이 뛰어야겠다. 피그 말리온은 희랍 신화에 나오는 귀프 로스 섬에서 태어난 유명한 조각가 가 아닌가. 그가 어느 날 큰 상아(象 牙)를 소재로 여인상을 조각했다.

피그말리온은 완성된 그 여인상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사랑하게 되어

피그말리온의 효과

멋있는 옷도 입혀주고 값비싼 목걸 이도 사서 걸어 주었다. 철따라 아름 다운 옷과 장식품도 바꿔 입히고 달 아 줬다. 바깥 나들이를 할 때는 포 옹과 입맞춤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 다. 피그말리온은 오랜 세월동안 아 프로디테 제단 앞에 엎드려 절을 올 리며 "갈라테이아를 제게 보내주세 요"라는 기도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피그말리온의 지극정성에 감복해 소원을 들어 주었다. 피그말 리온은 소원이 이루어진 줄도 모르 고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차가운 여인상에 입을 맞추는 순간, 입술에 따뜻한 온기를 발하며 완연한 여인 으로 변신했다. 드디어 그들은 결혼 을 하고 한 쌍의 행복한 부부가 되어 아들 '파포스'를 갖게 됐다. 그리스 의 키프러스 해안가 도시 '파포스' 는 그들의 아들 이름에서 유래되었 다고 한다. 지극정성이면 하찮은 상 아 조각품에도 생명이 깃들거늘 정

성을 다하면 못 이룰 일이 있겠는가.

올해는 복잡다단한 일들이 산적해 있어, 예년보다 진취적인 기상으로 뛰어야 한다. 진취적인 자세 속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자신감과 미래 지향적인 안 목이 숨어 있다. 뛰어가다 보면 때로 는 고난과 역경이 산맥을 넘어야 하 고 고뇌와 비애의 강을 건너야 할 때 도 있으리라. 이럴 때 가장 슬기로운 지혜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내 이다. 우리는 '욱'하고 치솟는 순간 적인 감정의 폭발을 참고 억누르지 못해서 큰 일을 저지르고 마침내 패 가망신하는 비극을 볼 때가 있다. 그 래서 선현들은 일인백락(一忍百樂) 이라 했다. 한 번 참으면 백 번 즐겁 다는 옛 덕담을 지금도 찬란한 금언 이다. 불가에서는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한다. 세상살 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 과 사치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침내

그 사람을 황폐화 시킨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스물두 살 때 미국 유학을 떠났다. 미국에서의 유 학생활은 돈 없이는 공부하기는 커 녕 살아가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남 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어렵고, 위험 한 일들을 했다. 그렇게 번돈으로 공 부를 하고, 교포를 돕고, 흥사단 운영 자금도 모았고, 귀국후에는 학교도 세웠고, 독립거금도 제공했다. 물질 적 정신적으로 땀흘려 정진하는 무 실역행(無實力行)의 교훈도 남겼다.

겸손과 분수는 동양의 지혜다. 겸 손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 음이고 행동이다. 겸손하려면 어진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인 자무적(仁者無敵)이라고 했듯이 겸 손 앞에는 적이 없다.

겸손과 분수를 지키는 사람은 나 눔과 베품을 실천하며 오늘도 온누 리에 따뜻한 온기를 내려주시는 어 른이심을 떠올려 본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에 이른 고교생들도 투표 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총선 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확 대된데 따른 변화입니다. 3월 새 학기에 제주도내 고교 3학년이 되는 6000여 명 중 1000명가량이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설

선거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 세입니다. 지난 해 12월 27일 공 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우 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 회원국 중 만 18세 로 선거 연령을 확대한 마지막 국 가가 됐습니다. 시대변화를 반영 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 차 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큽니다.

그렇지만 우려가 있는 것도 사 실입니다. 무엇보다 학교현장의 정치화를 걱정하면서 혼란을 줄 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지난 12 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 연 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 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총 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 따른 대책 만전 기해야

학교현장의 정치화에 대한 우 려를 불식시키고 혹시라도 학생 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 레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칫 선거사범으로 몰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비단 교복입은 학생 유권자 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들 도 특정 이념이나 정당에 치우쳐 주입식 교육을 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 다.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정치 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음을 유념 해야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3 월 새 학기 전까지 선거 참여 학 생을 위한 선거교육을 준비하기 로 한 만큼 예상되는 혼란과 문제 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

열린마당

제주기업과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제안하다



송 윤 일 ㈜아트임팩트 대표

아트임팩트는 제주공항 JDC 면세점 에 '이치(each)'라는 이름의 가치소 비 편집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 를 오가며 제주의 기업들과도 협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JDC의 소셜벤처 지원사업 '낭그늘'에 참여해 제주의 여러 기업 들과 협업의 기회를 갖게 됐다.

낭그늘 기간에 처음 진행한 프로 젝트는 제주지역 취약계층 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버려지는 자원 도 재활용할 수 있는 (사)제주올레 의 간세인형 재료를 서울의 '아름다 운가게'에서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 게 만들어진 간세인형은 동대문디자

인플라자에 운영하고 있는 '서울윤 리적패션(SEF)'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고사리숲이라는 제주 기업과 협업해 성산의 박하, 구좌의 당근 등의 성분을 활용해 비누, 립 밤, 크림 등의 화장품을 만드는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낭그늘 덕분에 아트임팩트와 함께 하는 브랜드의 범위와 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졌다. 산방산 근처의 문화 공간에서 낭그늘에 참여하는 팀들과 함께 팝업스토어와 전시를 통해 아 트임팩트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앞으로도 제주 기업들의 제 품들이 더 나은 방법을 통해 제작·판 매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

낭그늘을 함께 하는 제주기업 분 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주에서 다 양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좋 았고. 제주의 공간들에서 우리 기업 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마지막으로 많은 소셜벤처 기업들 이 제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 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낭그늘 에 도전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

뉴스-in

관덕정 '차 없는 거리' 후속 작업 주목

사업비 21억… 10월까지 정비

○…제주시가 관덕정 광장 앞 도 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가 주목.

시는 중앙로 사거리~서문사거리 구간에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오 는 10월 25일까지 가로등 설치, 보 행로 신설 및 유지보수, L형 측구 및 가로수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

제주시 관계자는 "차없는 거리 에서는 플리마켓 운영, 전시체험 등이 이뤄진다"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할 경우 소득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 고대로기자

도시계획 보상금 조기소진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 획시설의 일몰을 앞두고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로와 공원 편입토 지 보상 신청이 작년 12월 말부 터 시작된 가운데 서귀포시 지역 에서 신청이 몰려 올해 관련 예산 이 조기소진될 것으로 추정.

시에 따르면 올해 도로 31개 노 선과 공원 6곳의 보상비 934억원 중 현재 257명이 550억원을 신청해 이르면 2월 말쯤 예산 소진이 예상.

시 관계자는 "상승세를 이어오 던 땅값이 최근 조정국면을 보이 며 토지주들의 신청이 몰리는 상 황"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문학관 건립 20년 기다렸다"

○…제주도립 제주문학관 기공식 은 비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제주 문인협회, 제주작가회의 회원 등 이 찾아 문화계 숙원 사업이 현실 화되는 현장을 참관.

14일 도남동 부지에서 열린 기공 식에서 이종형 건립추진위 공동위 원장은 "20년을 기다렸다. 묵은 과 제가 해결되는 듯 하다"고 인사말.

앞서 축사를 한 제주도의회 양 영식 의원은 향후 서귀포문학관과 현기영문학관, 강성민 의원은 문 충성문학관 조성 필요성을 언급하 는 등 오랜 열망 끝에 탄생하는 문 학관에 고무된 모습. 진선희기자

비응급 환자까지 119구급차 부르다니

지난해 제주지역 119가 전국에서 가장 바빴습니다. 제주도소방안 전본부 119상황실로 2분 30초마 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대 원들은 8분에 한번 꼴로 출동했 습니다. 제주가 전국에서 119구 급차 환자 이용률이 가장 높았습 니다. 문제는 비응급환자가 구급 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 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19신고는 20만 470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60건입니다. 119상황실에 는 2분 30초마다 전화벨이 울렸 습니다. 이 중 병원약국 안내·민 원 상담 등 '비긴급' 신고가 7만 5661건(36.9%)으로 가장 많았습 니다. 화재・구급・구조 등 재난 관 련 신고는 6만6729건(32.6%)으 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출동 건수는 구급 5만749건, 구조 1만2376건, 화재 2126건 등 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 균 178번, 8분마다 한 차례씩 소

방・구급대원이 출동한 겁니다. 지 난해 도내에서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긴 환자는 3만8024명 으로 하루 평균 104명입니다. 인 구 대비로 보면 제주지역은 18명 당 1명이 구급차를 이용, 전국에 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119를 이용하는 일부 이용객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긴급차량입 니다. 1분 1초가 위급한 환자들이 이용하는 차량인데 무턱대고 호 출하는 사례가 많아 우려됩니다. 실제로 비응급 환자 이송은 2016 년 839건에서 2017년 710건, 2018년 400건입니다. 지난해는 443건으로 하루 1건이 넘을 정도 로 여전히 비응급 환자 이송이 적 잖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촌각을 다투는 긴급환자가 이용하지 못 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급한 환자 가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 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김재현(제일약품) 아버지 김해 김공 은일(前 공무원·향년 67세) 께서 서기 2020년 1월 14일 10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1월 15일(수) ▶ 발인일시: 2020년 1월 16일(목) 오전 10시
-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 ▶장 지: **양지공원**
- 부인 강복심
- 아들 김재현
- 김소연 사위 김승현
 - 주현 심호수
- ※ 연락처: 김재현 010-2846-2379 김소연 010-2837-2379 김승현 010-4994-2873 부민장례식장 742-500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고씨 옥선 (**향년 9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 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아 들 진안유 며느리 이덕순 안철 성영 성봉

분실공고

제주연동남해오네뜨

공급계약서, 1003호

(제주시 연동 300-3번지)

상기 계약서를 분실하였기에

2020년 1월 15일

분실물 :

현대백화점. 2020년 1월 15일

강복희 김미경

백주현 딸 진하정 사위 박창효

단열

🏋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H

발

분실물에 대한 무효를 공고합니다.

5 712-3644, 782-3644 위 공고인 **김 창 수** 010-4690-3636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 주산지 | 선흥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전기차

사고 팝니다.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evworld.kr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010-3693-2000, 010-2696-9876



탁윌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괴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